

<PRNewswire> 국제 물 관리 연구소 IWMI, 2012년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 수상자로 선정

(스톡홀름 2012년 3월 22일 PRNewswire=연합뉴스) 스리랑카 콜롬보에 본부를 둔 국제 물 관리 연구소 IWMI(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가 개발도상국의 농업수 관리 개선, 식량자원 보안 확충, 환경 건강 보호, 빈곤 감소에 기여한 선구적인 연구를 인정받아, 2012년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배포 자료 전문, 번역, 배경 사실, 사진 및 영상 자료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한다:
www.siwi.org/SWP2012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담수 중 70%가 농사에 사용된다. 21세기 중반에는 국제 식량 수요가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 많은 식량을 더 적은 물로 생산해 내도록 요구될 것이다. IWMI는 '물 한 방울 당 더 많은 작물'을 생산하고, 제한된 수자원으로 증가하는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모하는 정책과 기법을 홍보하는데 앞장서 왔다.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 심사위원회는 수상자 선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IWMI는 농경 물 관리 부문에서 가장 독보적인 기관으로서, 물사용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식량 보안, 경제 발전 및 환경 건강을 개선한 새로운 농업 정책과 투자를 주도해왔다."

1984년에 설립된 IWMI는 개발도상국 빈곤층을 돕기 위해서 농업 부문의 지속가능한 토지 및 물자원 사용에 초점을 맞추는 비영리 과학연구 기관이다. 지난 15년 동안 IWMI는 전 세계 토지와 물자원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을 제공하는 확실한 정보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스리랑카 콜롬보에 본부를,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역에는 지부를 두고 있다. IWMI는 CGIAR 컨소시엄 연구센터이다.

IWMI 소장 콜린 차터스 박사는 수상자 선정 소식을 듣고, "이는 IWMI에게 무한한 영광"이라며 "물론 진정한 주역은 지난 25년간 꾸준히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해온 IWMI의 헌신적인 직원들이다. 이들의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물관리 정책에 심오한 영향을 미치고, 극빈층이라 할수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혜택을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는 스톡홀름 국제 물 주간 (World Water Week in Stockholm) 기간 중 8월 30일에 열리는 시상식에서 2012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를 공식 수여할 예정이다.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는 스톡홀름 국제 물 연구소가 매년 수여하는 세계적인 상으로서, 수상자는 미화 150,000달러의 상금과 Orrefors가 특별 디자인한 수정 조각을 상패로 받는다.